

인터뷰 덕신스님 <조계종 문화국장>

조계종이 불교문화 현지의 땅 고르기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총무원 조직개편에서 새로 신설된 문화사회부(부장 시현)는 그간 종단이 소홀히 해왔던 불교문화 현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다양한 기회를 마련 준비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기본 골격의 구성과 각종사업의 시안을 마련, 문화포교의 극대화를 꾀할 문화사회부의 개편을 문화국장 덕신스님에게 물어보았다.

—영역도 넓고 그만큼 할 일도 많은 문화부에 거는 기대가 큼니다.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문화포교 관련 사업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는데 곧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교계에 산재된 문화관련 단체들을 파악 대표자들과의 토론회도 거쳐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도출해 낼 생각입니다. 현재까지의 분위기로 보아 각 분야마다 거기에 전문위원으로 활약해 줄 인사도 많고 총무원의 의욕도 높습니다.

—성보 문화재 관리와 관련한 계획은.

▲역시 기초자료를 모아 현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도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국가 지정 문화재 전문위원 중 많은 인사와 심도 있는

도제·학부와 교류 새경지 개척

요란한 중창불사·예술융합 절실

불교미술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파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불교미술이 갖는 특징 때문이다. 불교미술은 창작성 이전의 신앙적 의미부여가 강조되고 예배의 대상으로서의 가치평가가 앞서는 특징을 갖는다. 때문에 오늘날 불교미술 작가들은 전통의 계승과 창작의 영역확대를 두 측면을 함께 풀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같은 과제는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불교미술에 국한했던 과거와는 달리 새로운 예

'95 미술의 해

불교미술의 어제와 오늘



◇김홍복씨의 작품 '천은불보'

의 가르침이 예술적으로 응화되어 신앙적 감흥을 불러 일으키는 작품이 불교미술의 범주에 들 수 있다는 것이 불교미술에 대한 대체적인 정의다. 또한 이같은 불교미술을 창출해 내는 작가라면 당연히 불교적 메시지가 전달을 작업의 동기로서 삼아야 한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영역의 규정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작가들이 긍정하고 있다.

오늘날 불교미술 작가들이 고민하는 것은 전통과 현대화의 문제이다. 이 단편한 과제 풀기에서 작가들은 다양한 시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에 대한 평가도 다채롭게 나오고 있다.

조계종이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는 불교미술전람회 10여년 전부터 현대불교미술 분야를 강화한 것은 불교미술의 현대화에 대한 요구의 선이 높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실제 회화, 조각 등의 분야에서 획기적인 현대미술품이 접수되는 실적도

상당히 높고 있는 추세다. 현재 불교미술의 전풍을 고스란히 전수한 작가는 얼마나 될까.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같은 질문은 서슴없이 거론할 수 있는 거장은 그리 많지 않다. 불화부문의 경우 석정스님과 만봉스님이 가장 두드러진 산맥이라면 그 맥을 잇기 위해 문화에서 수학하며 정통화를 철저히 배우며 장인정신을 키워가는 후학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또한 현대적 화법을 개척하거나 조각 건축분야에서 새로운 시도로 신선한 이미지를 세우는 작가도 날로 늘어나는 추세다.

따라서 전통불교미술의 맥을 잇는 인재와 신선한 불교미술의 영역을 개척해 낼 예인의 양성에 보다 큰 관심이 요망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종교대나 태고종 동방불교대 등 교육기관이 이 분야의 인재 기르기에 과감한 배려를 해야 하고 종단 차원의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는 것

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불교미술계가 안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로 불교미술에 대한 승가와 재가 모두를 포함하는 감상자의 인육이 좁고 있다. 불교미술 작가들이 개최하는 전시회에 대한 불자들의 관심도가 낮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불교미술은 전시회를 통해서만 발표되는 것이 아니다. 새로 지어지는 사찰의 담우도 불교미술의 건축분야에 해당된다. 그 담우를 장식하는 단청이나 벽화, 탱화도 불교미술의 회화분야에 해당되며 모셔지는 불상이나 수미단, 담집 또 뜰에 세워지는 탑들은 불교미술의 조각 분야에 속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한 사람이 불사를 추진해 새로 짓는 한담의 담우는 불교사상과 신앙의 의미가 예술성을 담보로 총괄된 불교미술의 '종합적인 전시장인 셈이다. 사찰의 외부에는 감상용 조각품이나 조형물들이 적절히 배치되고 법당내부에는 예배의 대상으로

“전통계승과 현대화의 꾸준한 시도로 창출되는 불교미술은 우리시대 신형의 표현이다”

서의 성보들이 모셔질 때, 완벽 한 불사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이같은 입장에서 불매 과연 전곡에서 행해지는 신축 중창 불사의 규모에 비해 얼마나 아름다운 불교미술이 창출되고 있는지는 질문은 충분한 타당성을 갖는다. 그러나 이 질문 역시 민족사적 담을 내놓기에 곤란한 점이 많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사찰측의 경제적인 측면과 예술적 가치창조의 괴리감도 문제지만 후세까지 자랑할 만한 우리시대의 불교 미술 전시장으로서의 건축 불사를 추진하기에는 아직 승가의 안목이 높지 못하다는 것이 미술사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큰 의미로 볼 때 우리 시대의 불교미술은 곧 우리 시대 불교 신형의 표현이다. 전통의 계승과 현대적 창작품의 양산, 감상자들의 인식 제고, 거시적인 측면에서 추진되는 각종 불사, 아직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불교미술계는 미술의 해를 맞아 우선적으로 인식전환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불교미술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임연태기자)

불심시심 <10>

넘볼 수 없는 불

中無一物本來清 (중무일물본래청) (중무일물본래청) 아무것도 없는 속 원래 맑아서
 舉世無人親戶庭 (거세무인친호정) (거세무인친호정) 온 세상 누구도 이 뜨락 넘볼 수 없다.
 鳳鳴龍吟破曉寂 (봉소음음파선적) (봉소음음파선적) 봉의 휘파람 용의 울음으로 선적을 깨쳐
 一等明月滿江城 (일등명월만강성) (일등명월만강성) 한 줄기 밝은 달 강 마을에 가득하다.

이 시는 고려말 태고(太古) 세계를 넘볼 수 없는 것이 역 화상의 시이다. 죽안(竹庵)이라 시 승속의 거리인 것이다. 이 호를 지은 재자에게 주는 명호 호를 가진 주인공의 인품 또한 송이다. 고려말에는 이러한 명 마한가지이다. 승속불이라 하여 호승이 일반화되어 있다. 이것은 지금에 있어서도 수계와 통시에 계명을 받고 그 계명에 상응하는 법문이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렇다고 함시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비어 있기에 더욱더 속 소리날 수가 있다. 악기의 소제로서 대나무가 으뜸인것도 댓 속이 비어 있기 때문이다. 이 빈속에서의 울림은 용이나 봉황의 소리이다. 부처님의 사자 후가 바로 이 울림이요, 스님의 법말씀이 바로 이러한 울림인 것이다. 이 울림이 삼라 만상의 모든 고요함을 일깨우는 것이다. 그렇다하여 고요함이 바로 시끄러움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강 가에 드리운 낙시대 글로 돌아오르는 달처럼 한결한 것이다. 강 마을을 가득 메운 달빛처럼 맑고도 고요한 것이 스님의 외침이다.

이충찬(동국대교수)

탑평리 7층탑 발굴지 정비

총주시, 미륵사지등 문화재 보수

총주시는 13억2천5백만원의 들여 국보 6호인 중앙탑등 관내 문화재를 보수하기로 했다. 시는 사적 317호 미륵사지 정비에 7천1백만원과 지방비 31호 총주산성 보수에 우선 투자하고, 국보 6호 탑평리 7층 석탑 발굴지 정비비용에 3억을 투자하는 등 모두 13억2천5백만원의 들여 12건의 문화재를 보수할 방침이다. 또 올해 안으로 문화재보수 사업을 완료하고 문화재보존 사업을 지속적으로 펴나갈 계획이다.

제3기 졸업공연 가져 국산 어린이 굴렁쇠

국산 굴렁쇠어린이(대표 김형균)가 지난 21일 연극학교 제3기 졸업공연을 가졌다. 춤노래극 불, 여름, 가을, 겨울과 대본놀이 아름다운 선물의 작품에 23명의 졸업생이 총 출연해 2시간 30분 동안 재능을 발휘했다.

국산 굴렁쇠어린이 연극학교는 92년 3월 창립, 국민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들의 창의력, 상상력, 논리력, 협동심을 키우기 위해 운영돼 온 순수 어린이 전문 극단이다.

김인만씨등 4명 당선 동쪽나라 아동문학상

월간 '굴렁쇠어린이'와 도서출판 '동쪽나라'가 주관하는 동쪽나라 아동문학상 시상식을 지난 24일 출판문화회관에서 가졌다. 당선지는 장편동화부문에 모닥불이 되고 싶다는 김인만씨, 단편동화부문의 흰고무신 이야기에 오목주씨, 손톱짜기와 16편의 동시를 출품한 김현씨, 유아동화부문에 통통이저씨와 안경의 1편을 선보인 김상희씨 등 4명이다.

'95 미술의 해 선포식 거행

16일 세종문화회관에서 문화체육부와 미술의해 조직위원회는 정부와 문화예술계 인사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6일 세종문화회관에서 '95 미술의해 선포식을 가졌다. 이날 선포식은 문체부 주둔 식장관의 미술의해 선포에 이어 김영삼대통령의 축사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불교문화 전문위원회 구성”

문화재학교 개설, 대형미술전도 개최

▲무엇보다 불교 문화계를 총괄해 방향을 이끌어 갈 전문위원회의 구성이 시급합니다. 문화라는 특수성을 감안 각분야의 전문학자와 현장에서 뛰고 있는 중진급 인사를 모아 불교문화전문위원회를 상반기 중에 구성할 생각입니다. 미술, 공연, 음악, 문학 등 각 분야에서 노숙되어 온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전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종단 차원의 대안을 마련한다는 것이 첫째 계획입니다. 이 위원회에는 찬불가시위원회 등 각 분과별 소위원회도 두어 분야별로 전문적인 진단과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각 분야의 중견급 인사를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방법이나 구체적인 활동방향들을 타진하고 있

는의뢰 해 본 결과 전문위원의 구성과 그를 통한 문제점 파악, 효율적인 대안 마련 등이 금년내로 기본틀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문화재학교등을 마련 성보 관리를 위해 스님과 불자들을 교육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입니다. 종단의 자체교육은 큰 효과를 보여 줄 것입니다.

—청소년·아동 관련 계획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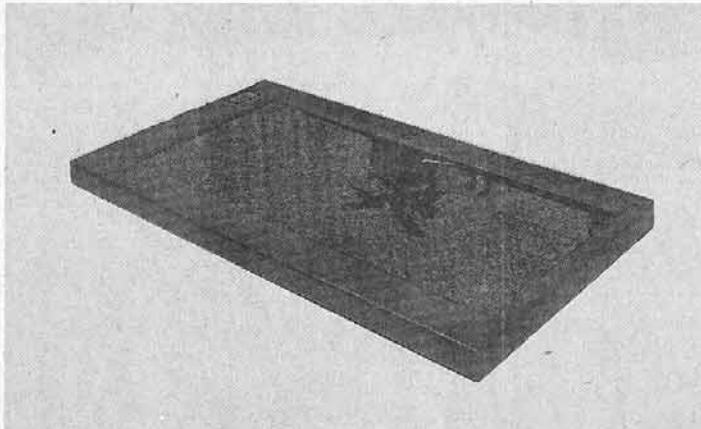
▲불미전의 역대 입상자와 불교미술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대형 전시회를 가질 생각입니다. 가을에 열게 될 이 전시회는 불교미술의 전 분야에 폭넓은 작가들이 참석토록 할 것입니다. 또 지난해 개최하지 못한 불교아동 미술대전도 올해에 반드시 개최할 계획입니다.

(태)

우리 시대 최고의 수맥방지 온돌침대

병이 있는 사람은 병세가 호전되거나 치유되고 허약한 사람은 건강을 되찾고 건강한 사람은 더욱 건강하게 태어난다

온돌
자연적
인간의 몸은 소우주
자연의 기를 원한다



전기용품 Q마크 획득
 품질보증
 본 제품은 품질시험을
 통과한 우수 제품입니다.
 EM
 품질보증

전국에서 난치병의 개선효과를 보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전화로 상담하여 주세요

왜 많은 분들이 수맥방지 온돌침대의 효능에 만족하실까요?

■ 전화 주시면 계약금만으로 바로 설치해드립니다.
 고객감사 현금이 10개월 할부 단행!!
 — 기간 1995. 1. 26까지 —

☎민영실업
 (02)208-7974~5
 부산 (051)412-9351

생산자 — 총판 — 대리점 — 백화점 — 소비자

■ 현대인의 질병 그 원인이 수맥(水脈)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수맥의 기(氣)는 인체의 조화를 깨뜨리기 때문에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현대인은 이 수맥과 콘크리트 벽 바닥에서 뿜어져 나오는 라듐방사선과 독소로 인하여 건강을 잃고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수맥 방지 들침대는 이러한 독소와 수맥을 방지하고 실내의 유해한 공기를 정화하여 편안한 수면과 건강을 지켜주는 돌침대입니다.

■ 온돌침대는 확실한 효과로 선택하십시오!
 ●혈액순환의 촉진 및 신진대사의 활성화 ●통증의 경감 작용과 조직의 재생작용으로 신경통·류마티스·관절염·디스크·고혈압·당뇨병·중풍·냉대허증·산후조리·교통사고 후유증 등 성인병과 부인병에 탁월한 효과
 ●피로회복·불면증·비만·미용 등에 효과 있습니다.

●기존 사용하시는 침대를 수맥방지 들침대로 개조해 드립니다.